

광양경제청, 올해 투자유치 4조9000억 ‘역대 최다’

최근 3년 실적 두배 ‘평균’... 신성장 산업 주도
15개 기업 유치... 611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광양경제청은 올해 4조9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실적 1조8000억원을 두 배 이상 뛰어 넘는 것으로 개정이

래 최대 성과다.

분야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친환경 신성장 산업이 전체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 포스코퓨처엠 등 6개 기업이 4조75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금속가공분야는 인투알(주) 등 4개사가 588억원, 물류·유통분야는 연우(주) 등 2개사가 82억원에 그쳤다. 또 관광·레

저분야는 HJ디오션리조트(주)가 5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김 톱스 등 일반 제조업 2개사가 512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15개 기업 4조9000억원 투자유치로 61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구충곤 경제청장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저성장, 미국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와 기업 맞춤형 지원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내년에도 혁신 생태계 조성 과 정주여건 개선,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은 내년에도 정부지원정책과 연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기업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정주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대외여건 악화를 위기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주시, 핵심 미래사업 추진 상황 점검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주재 광주미래전략TF 회의

광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지역 성장전략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광주미래전략전담팀(TF)’ 회의와 열고, 2026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미래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했다.

특히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AI·반도체 실증밸리 △광주형 실리온밸리 △미래 에너지·배터리 산업 육성 △콘텐츠밸리 △AI 헬스케어 등 ‘부강한 광주’를 견인할 미래 산업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의 ‘광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유치기업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제공 △칩 제조-패키징 기업 간 합작 생산공장(Fab) 건설 지원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과 인력양성 거점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시대위원회 등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중앙부처 동향을 공유하고, 중앙 정책과 지방 사업 간 연계 방안과 광주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 사업의 이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정책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시민과 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핵심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광주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미래전략전담팀(TF)은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지역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구성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지역 성장전략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광주미래전략전담팀(TF)’ 회의와 열고, 2026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미래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아연 광주시회, ‘아파트 관리 편람’ 설명회 성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전일빌딩 시민마루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 편람’ 설명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편람은 △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및 의결 사항 △회의의 안전 구성과 진행 요령 △동대표 선거 및 해임 절차 △감사 업무와 확인 사항 △시설자 선정 지침 △정기수선계획과 하자·부실공사 대응 방안 △노후 관리와 취업규칙 △관리규약에 추가할 조항 △시행령상 행위허가 및 신고 기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광주시회는 지역 내 10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편람을 배포할 계획이다.

담양 친환경쌀, 제주도 학교급식 오른다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급업체 선정

내년부터 2년간 500t 공급... 전남 쌀 경쟁력 입증

전남 친환경 쌀이 제주도 학교급식 시장을 뚫었다. 담양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생들의 급식 식탁에 오르며,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와 공급 역량이 전국에서 다시 입증됐다.

전남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2027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결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주도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실사, 3차 품평회를 거쳐는 등 다단계 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 과정에서 학교급식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인증을 기반으로 한 생산 관리 체계, 도정·유통 관리 수준, 안정적인 물량 공급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으로 반영됐다.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가 진행된 결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친환경 쌀의

품질과 안전성,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현장에 친환경 쌀 500t을 공급하게 된다.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앞서 2026~2028년 서울시 학교급식 양곡 생산자단체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분야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통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 시설과 첨단 도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광공업 생산·건설 수주 회복 소비는 감소... 전남 주요지표 ‘뚝’

11월 광주지역의 광공업 생산과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전남은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26.3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자동차(34.3%)와 전자·통신(54.6%), 전기장비(20.3%) 생산이 크게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고무·플라스틱(-34.2%), 금속가공(-33.9%), 기계장비(-14.0%)는 감소했다.

건설 수주도 큰 폭으로 늘었다. 11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331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4% 증가했다. 이는 전국 건설수주액 19조5069억원 가운데 1.7%를 차지하는 규모다. 공공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수주가 늘며 430.4% 급증한 반면, 민간 부문은 건설업과 기타 비제조업 부진으로 21.5% 감소했다.

다만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했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며, 백화점 판매는 3.4%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17.2% 줄었다.

전남은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1월 전남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석유정제(5.5%), 전기·가스업(0.5%)은 소폭 증가했지만, 1차 금속(-10.8%), 화학제품(-2.7%) 감소 폭이 컸다.

건설 수주도 위축됐다. 11월 전남 건설수주액은 41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했다. 공공 부문은 공기업과 기타 공공단체 수주 증가로 10.6%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석유·화학과 기타 비제조업 부진으로 16.3% 줄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